

文이나 안이나... 경선서 나눠준 호남표심 누구에게 쏠릴까

‘장미대선’ 본선 개시...남은 변수는 호남표심 선거일까지 고민할 듯 비문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울 듯 갈 곳 없는 보수층 표심 향배 촉각

각 당이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모두 선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본선 경쟁이 시작됐다. ‘5·9 장미 대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호남의 전략적 투표 여부와 보수층의 표심 향방, 문재인 대세론을 견제할 비문(非文) 후보 단일화 여부, 각 후보들의 검증과정에서 돌발악재 등이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

◇호남 민심 향배는=야권의 텃밭인 호남은 과거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야권 후보가 결정되면 90% 안팎의 지지로 물표를 몰아왔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야권의 후보 2명이 경쟁을 함에 따라 호남 표심이 향후 어떻게 나뉠지 주목된다.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호남의 중요성이 어느 선거 때보다 부각됐던 만큼 본선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텃밭 표심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과정에서 호남에서의 ‘반문(反文) 정서’가 사실상 희석된 점을, 국민의당은 첫 순회경선지역인 광주·전남에서 예상 밖 ‘대박 흥행’을 거둔 점을 ‘공정적 시그널’로 보고 호남에 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부인 김정숙 씨와 함께 5일 오후 경남 양산시 상북면에 위치한 부친 묘소를 찾고 있다.

력투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호남 민심은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상승하는 등 본선에서 문재인 후보와의 ‘양강 구도’ 형성 가능성을 점치면서 선거 막판까지 선택을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수정권 10년을 지나면서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만큼 호남에 대한 애정과 진정성을 가진 후보가 누구인지를 마지막까지 꼼꼼히 따져보면서 선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 당과 두 후보는 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과 야권의 심장부로 불리는 광주민심을 잡는

데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문 대세론과 비문 단일화 여부는=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선거일까지 이어질지도 주요 관심사다. 경선과정에서도 이번같이 대세론을 이어간데다, 문 후보의 최대 강점이 지지율인 만큼 본선에서도 ‘문 대세론’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추격이 거센데다, ‘비문 연대’ 또는 ‘비문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문 대세론’은 남은 선거기간 중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5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7서울모터쇼를 찾아 르노삼성자동차부스 내 전기차에 탑승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막판까지 비문 연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연일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후보 단일화 논의까지는 물결의 등의 과제가 산적한 만큼 남은 후보등록일 전까지 비문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보수층 전략 투표도 나올까=대표적인 보수정당의 후보들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만큼 전통적 보수층 표심의 움직임도 변수로 꼽힌다.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많은 대구·경북(TK) 표

심과 ‘양강 체제’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고향인 부산·경남(PK) 민심이 주목된다. TK이 경우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보수의 대표주자라고 하기에 존재감이 약한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선택’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PK의 경우 현재 지지율면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압도하고 있지만, PK내 전통적인 중도층과 보수층의 표심 향배가 선거 막판 어떤 선택을 할 지가 관심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 오늘 광양·광주·목포 찾아 ‘통합 행보’

안철수, 지하철 시민 만나고 현충원 묘역 참배

안, 文에 ‘양자 끝장토론’ 제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6일 호남을 방문해 ‘통합과 치유’ 행보에 나선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광양제철소를 방문한다. 문 후보는 광양제철소 옹공로 주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옹공로 앞까지 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모든 적폐와 지역·세대·이념 갈등을 모두 옹공로에 집어넣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새 출발하겠다’며 옹공로 정신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오후 2시에는 목포시청을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하며 선제조사위원들을 격려한 뒤 목포대에서 강연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일 첫 대선 행보로 ‘새벽 출근길 지하철’을 택했다.

안 후보는 이날 새벽 6시에 노원구 자택에서 나와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에서 고속터미널행 열차에 올라 태릉입구역까지 약 10분간 시민들을 만나면서 여러 대화를 나눴다.

이어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 현충탑과 무명용사 봉안실을 참배한 뒤 역대 대통령 묘역 대신 일반사병 묘역을 먼저 찾아 눈길을 끌었다. 역대 대통령 묘역 방문은 김대중·김영삼·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순서로 이뤄졌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안 후보는 “다자구도 아래에서도 50% 이상 지지 받는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이 짧은 30여 일 동안 누가 제대로 준비된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추후 캠프에서 논의해 보겠다”면서 입장을 유보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의·인간미 갖춘 현명한 지도자에 대한 갈망



김은영의 ‘그림 생각’

(181) 마키아벨리

이른바 ‘장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요즘, 누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명한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리더십과 권력, 통치술을 설명하고 있는 ‘군주론’을 다시 뒤적여보게 한다. 영문 번역본이 오류가 많아 이탈리아 원전을 번역했다는 새로운 버전도 소장해 보았지만 역시 압권은 저자 ‘마키아벨리’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 연구한 책인 것 같다.

김상근교수(연세대)는 저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현자 마키아벨리’에서 “사악함의 대명사라 불린 마키아벨리는 강자들이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조언한 것이 아니라 지배자들에게 의해 억울하게 당하고 사는 약자들을 향한 조언”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마키아벨리에 접근한다. ‘군주론’은 단순히 권력의 속성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고대 로마와 피렌체 역사에 나타난 인문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과 권력의 본질에 대해 논하고 있어 현재 우리사회의 숨 막히는 정치 현상과 술한 권력 투쟁의 상황에서 한번쯤 다시 펼쳐볼만 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통치술 전반에서 권모술수를 부리는’이란 뜻의 ‘마키아벨리즘’ 이미지에 갇혀 차갑고 냉소적이게만 느꼈던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



‘마키아벨리 초상화’

1527)의 초상화도 새삼 달리 보인다. 메디치가의 여러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던 산티 디 티토(1536~1603)의 ‘마키아벨리 초상화’는 영리하게 보이는 반짝이는 눈과 외모에서 날카로운 관찰자이며 사색 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얇은 미소가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드럽게 다가와 긴장감을 해제시키는 듯하다.

마키아벨리는 한 시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에게 ‘윤리적인 시대정신이나 행운(포르투나) 못지않게 용기를 통해 성취해야만 하는 탁월함의 품격(비르투스)’을 요구했다. 더불어 리더는 성실하고, 신의가 두텁고, 결과 속이 같고, 인정미가 넘치고, 신실한 인물로 생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덕목도 추가하고 있다.

(경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봄특선 벚꽃구경~ 무안에서 떠나세요!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관광·휴양·온천·체험·골프 여행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세요!!
일본여행/국내·제주여행/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www.joytour.kr

항공왕복 북큐슈 2박3일 “봄” 상품 [매주 금요일 출발/3월 31일~6월 4일]

〈북큐슈 정통〉	벳부·유후인·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579,000원~
★한정특가★	3/31, 4/14 북큐슈 여행	1인	499,000원~
〈아마구치 정통〉	아마구치·하기·시모노세키·기타큐슈	1인	799,000원~
〈우레시노 정통〉	우레시노·가라초·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799,000원~
〈골프상품〉	기타큐슈 골프	1인	999,000원~

※ 골프상품 인센, 단독은 문의바랍니다.
※ 4/28, 4/30, 5/3, 5/5은 플드워크기간이므로 별도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항공/선박 편도 북큐슈 “봄” 상품 [매주 일·화·수요일 출발/4월 2일~6월 6일]

〈일요일 출발〉	3박4일 항공 + 선박 (선착순 한정 30명)	1인	399,000원~
〈화요일 출발〉	3박4일 선박 + 항공	1인	499,000원~
〈수요일 출발〉	2박3일 선박 + 항공	1인	399,000원~
〈올레길〉	산악회를 위한 큐슈올레길 2박3일	매주 수요일 출발	399,000원~
〈항공/선박〉	후쿠오카 골프 36H 3박4일	1인	799,000원~

무안 → 다낭 전세기 “봄” 상품 [매주 수·토요일 출발/4월 19일~6월 24일]

1. 항공 + 에어텔	1인	749,000원~
2. 다낭·호이안·후에	1인	799,000원~
3. 다낭·후에·밭마·호이안트레킹	1인	849,000원~

항공·선박 왕복 제주도 “봄” 상품 [매일 출발/3월 24일~7월 20일]

〈광주〉	제주도 웰빙여행	1인	299,000원~
〈목포〉	선박왕복 제주도 여행	1인	189,000원~

※ 제주상품은 석식 2회, 옵션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울포함〉 대마도 1박2일 [4월 23일] 279,000원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쯤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상품:여행,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전지역 ●산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봉사료,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